

비선택적 결속과 다중전치 의문사구조**

윤 만 근
(청주대학교)

Man-Kun Yoon. 1999. Unselective Binding and Multiple Wh-Fronting Construction. *linguistics* 7-3, 1-26. The first aim of this paper is to argue that any event in our world necessarily co-occur with four adverbials which can turn into four different wh-adjuncts; when, where, why and how. This paper further argues that this phenomenon is language universal. Second aim is that unselective binding applies only to wh-NPs, not wh-adjuncts, and hence covert raising is necessary for the checking of wh-adjuncts. Although wh-NPs can be interpreted in situ by unselective binding, case checking of wh-NPs requires covert or overt raising of them. Third aim is that nominative wh-NPs can be checked by C^o and accusative wh-NPs by C^{omax}. Detailed explanations about the C^{omax} are provided in section 5 below. (Chongju University)

1. 서론

최근 다중전치 의문사구조(Multiple Wh-Fronting Constructions)에 대한 논문이 Koizumi(1994), Boskovic(1998), Richards(1997) 등에 의해서 많이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중전치 의문사구조에 대한 연구는 Wachowicz(1974), Comorovski(1986), Rudin (1982, 1988)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필자의 새로운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event)은 시간부사(time adverbials), 장소부사(place adverbials), 양태부사(manner adverbials), 원인부사(reason adverbials) 등과 반드시 함께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 이 논문은 1998-1999학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서 작성된 것임.

** 익명의 심사자 논평이 본 논문의 완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2 윤 만 근

네 개의 부사는 바로 문장을 의문문으로 변형시킬 경우 네 개의 wh-adjuncts, 즉, when, where, why, how로 바뀌어져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물리적인, 의미적인,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리이며 사실이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도 이 네 개의 부사와 관련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필자가 이 사실을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통해서 확인, 점검해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네 개의 wh-adjuncts를 나타내는 문법적 현상은 언어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네 개의 부사가 반드시 함께 나타난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둘째, 최근 통사론에 비선택적 결속(unselective binding)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국내 학자들 중에서는, 이 비선택적 결속이 제자리에 나타나는 wh-phrase의 모든 자질을 점검한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잘못된 견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비선택적 결속을 제안한 제안자들의 견해를 살펴 보거나 Chomsky(1995)의 견해를 살펴보아도, 비선택적 결속은 wh-phrase의 점검문제를 모두 다 처리하지 못한다: 비선택적 결속은 오직 wh-NP의 해석만 제자리에서 할 수 있고, wh-NP의 격은 점검하지 못한다.

셋째, Chomsky(1995)에서 논항주어와 논항목적어는 $T^{o(max)}$ 에 의해서 점검이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이론을 연장하여 wh-NP로 된 비논항주어와 비논항목적어는 $C^{o(max)}$ 에서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TP 내의 주어, 목적어는 $T^{o(max)}$ 가 논항을 점검한다면 CP 내에서 wh-NP로 된 주어 목적어는 동일한 방법으로 $C^{o(max)}$ 에 의해서 비논항으로 점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분석은 5절에서 제시된다.

2 영어도 다중전치 의문사 구조를 갖는다.

앞에서 이미 언급된 것 같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events)은, 비록 그것이 나무 잎이 떨어지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이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 같은 커다란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이 네 개의 부사와 함께 나타난다. 그러나 화자에 따라 이 네 개의 부사 중 어느 부사만 wh-adjuncts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 즉, 네 개의 부사 중 어느 것을 wh-adjunct로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 수의적으로 결정되며, 또 네 개의 부사 중에서 몇 개를 wh-adjuncts로 변화시킬까 하는 것도 화자의 수의적인 의도에 달려있다. 예컨대 다음

(1)-(4)에서는 각 문장에서 오직 하나의 부사만 wh-adjunct로 변화시켜서 문장 앞으로 이동시켰다.

- (1) When did he do it?
- (2) Where did he do it?
- (3) Why did he do it?
- (4) How did he do it?

그런데 다음 (5)는 위 (1), (2)의 문장이 함께 합쳐져서 나타난 것이 아니며, (6)은 (1), (2), (3)이 함께 합쳐져서 나타난 것이 아니며, (7)도 앞 (1), (2), (3), (4)가 함께 합쳐져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5) When and where did he do it?----->
when, where가 문장의 앞으로 가시적으로 이동함
- (6) When, where and why did he do it?----->
when, where, why가 문장의 앞으로 가시적으로 이동함
- (7) When, where, why and how did he do it?----->
when, where, why, how가 문장의 앞으로 가시적으로 이동함

위 (5)-(7)의 예문에 제시한 것 같이 한 문장 내에서 두 개, 세 개, 네 개의 wh-adjuncts가 나타나서 이들이 문장의 앞으로 이동한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아래 (8a,b,c)의 설명이 이를 증명한다.

(8a,b,c)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가정은 다음 (8b,c)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네 개의 다른 부사구에서 네 개의 wh-adjuncts, 즉, when, where, why, how가 생성되어 나온 후, 이들이 가시적인 이동에 의해, (8a)처럼 생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이론으로 위 (5)-(7)에 나타난 wh-adjuncts는 각각 독립된 문장이 and로 묶여져 한 문장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 문장 내에서 wh-phrase가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자:

- (8) a. When, where, why and how did he present it?
- b. On February 6, 1999, at Taegu University, Prof. Yoon
when 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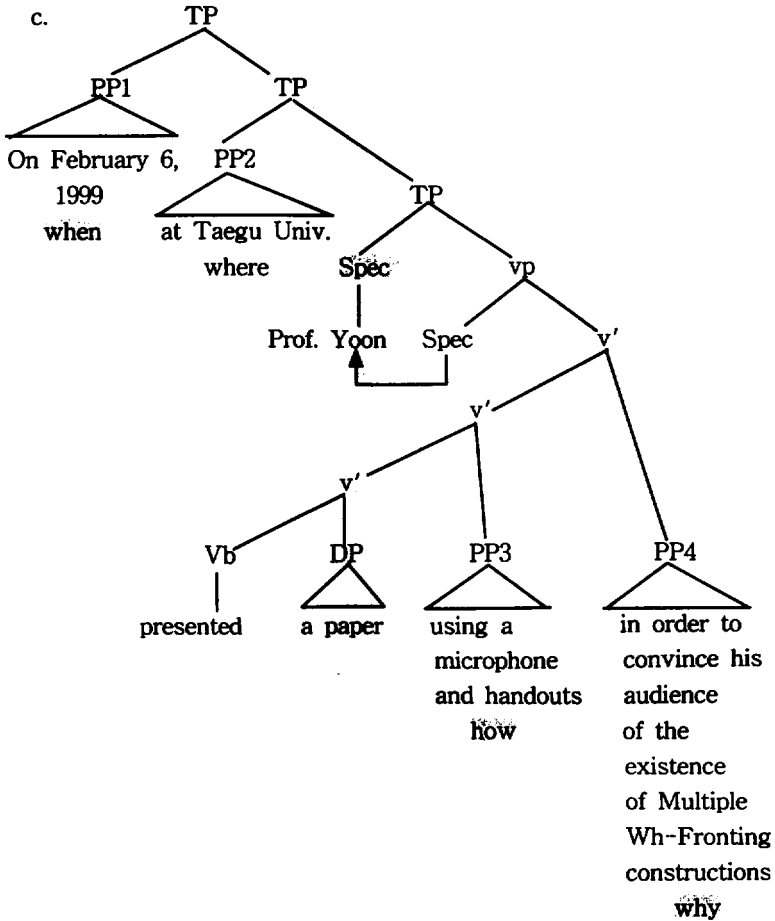
4 윤 만 근

presented his paper, using a microphone and handouts.
how

in order to convince his audience of the existence of
Multiple Wh-Fronting Constructions in the English
Language. why

위 (8b)가 의문문으로 변형 될 때, 한 문장 내에서 줄친 부분의 부사구가 wh-adjuncts로 변화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며, 동시에 한문장 내에서 wh-adjuncts가 문장 앞으로 네 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지금까지 어떤 영문법 학자나 언어학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은 없다고 본다. 이제 영어에서도 (8a)를 다중전치 의문사구조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위 (8a)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하나의 문제는 "and"의 용법에 관한 것이다. 영어에서는 어떤 사물을 열거할 때 맨 마지막 요소 앞에는 반드시 "and"를 삽입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영어와 같은 "and"의 용법을 갖고 있는 언어도 있지만 "and"와 같은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도 많다. 우리말이나 일본어의 경우에도 열거되는 항목 사이에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이것, 저것 써주세요" 등등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wh-phrase인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와 같은 의문문에서 의문사 사이에는 접속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또 동구어(東歐語)인 Slavic계 언어에서도 다중전치 의문사구조에서 wh-phrase 사이에 접속사 "and"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서 특히 wh-phrase를 열거할 경우 접속사 "and"를 사용하는 문제는 언어에 따라 수의적인 성격에 달려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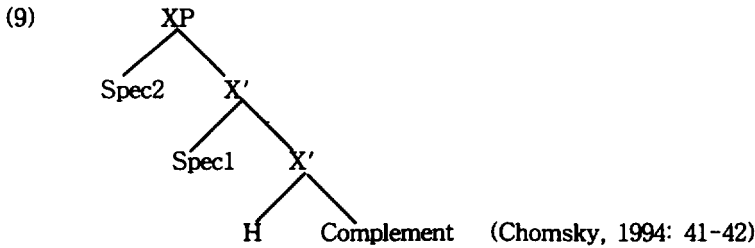


3. 다중전치 의문문구조에 대한 이론적 장치

Chomsky (1994: 41-42)와 Chomsky의 Minimalist Inquires: the Framework (1998: 67)에서 분명히 multiple wh-fronting constructions의 기술적 장치 (descriptive devices)를 인정하고 있다. Bare Phrase Structure 에서 다음 (9)와 같은 증주어구조를 허용하면서 이 증주어구조가 (10)의 설

6 윤 만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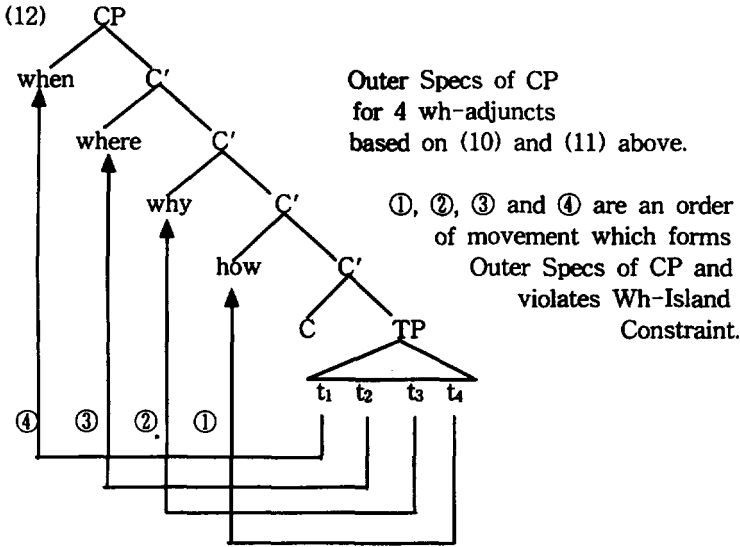
명에서처럼 multiple wh-fronting constructions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고, 또 Chomsky의 Minimalist Inquires: the Framework (1998: 67)에서는 다음 (11)과 같이 Outer Specs와 Inner Specs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10) Ura has found that these properties [multiple nominative case and agreement] correlate in a wide range of language, lending strong empirical support to the conclusion that (77) [here (9) above] is indeed an option that a language may have. A language might allow this option for some heads but not others (perhaps C but not AGR), in which case other properties follow, all matters now under investigation. (Chomsky, 1994: 41-42). (underlined words in brackets are mine)

- (11) a. $\{\gamma, \{\beta, \{XP, H\}\}\} \longrightarrow$ Outer Specs
 b. $\{F, \{\gamma, \{XP, H\}\}\} \longrightarrow$ Inner Specs (Chomsky, 1998: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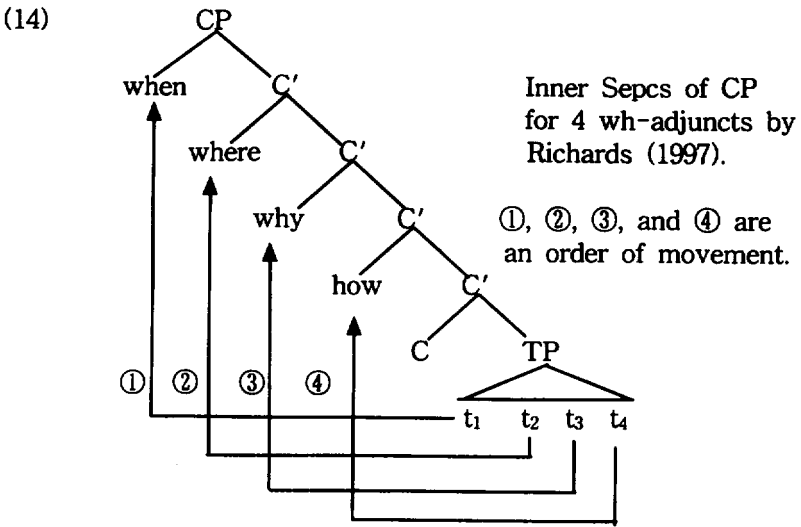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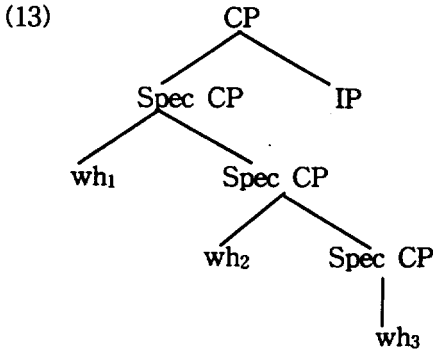
위 (10)에서 Chomsky는 (9)의 H가 C는 될 수 있으나, AGR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만일 위 (9), (10)을 받아들인다면 Multiple Wh-Fronting Construction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wh-phrase가 다른 wh-phrase를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 (12)에서처럼 Wh-Island Constraint의 위반을 허용해야한다. 그런데 Romanian과 Bulgarian에서는 Wh-Island Constraint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Romanian과 Bulgarian에서는 (12)가 그대로 적용되고 인정된다.



위 (10), (11)에서처럼 Chomsky가 Multiple Wh-Fronting Construction을 위해서 Multiple Outer Spec을 제안하기 전에 Rudin(1988)은 그 보다 훨씬 먼저 Slavic계 언어에 나타나는 Multiple Wh-Fronting Construction의 기술을 위해서 다중전치 의문사구조의 기술 장치가 우리들의 문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Multiple Wh-Fronting Construction에 대한 문법기술의 선구자는 Rudin(1988)이다. 그러나 그는 다중전치 의문사구조를 다음 (13)과 같이 제안했는데 그 당시 이론으로는 고려될 수 있는 분석이었을는지 모르나 최근 문법이론으로 본다면 적절치 못하다. 우선 ECP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부가구조를 (13)과 같이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런데 최근의 이론으로써 Richards(1997)는 다음 (14)와 같은 Inner Spec 이론을 제안했다. 이 Inner Spec에 의하면 Wh-Island Constraint는 위반하지 않으나 Extension Condition을 위반한다. Wh-Island Constraint와 shortest movement를 준수하기 위해서 Richards(1997)가 제안한 CP의 Inner Spec은 다음 (14)와 같다. Chomsky(1998)도 앞 (11b)와 같이 inner Spec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도 여기서 Inner Spec의 이론이 한국어의 중주어 점검에 필요하다고 본다. 즉, 한국어나 일본어의 중주어구조가 vp 내에서 생성된 후 TP로 인상되면 CP의

8 윤 만 근

outer Spec과 같이 외곽주어로 이동할 수 없다. 그 이유는 outer Spec으로 인상되면 중주어의 어순이 바뀌기 때문이다.



4. 비선택적 결속(unselective binding)과 Chomsky (1995)의 다중전치 의문사구조

최근에 비선택적 결속(unselective binding)이라는 개념이 통사론에 도입되었는데 이 개념은 원래 wh-adjuncts에는 적용될 수 없고 오직 wh-NP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제한된 개념(restricted notion)이다. 아래에 제시된 Chomsky(1995: 290-291)의 설명을 보기로 하자:

- (15) a. Q [_{IP} John gave DP to Mary]. Q = weak Q and DP is which book
 b. Q [_{IP} John gave which book to Mary?]
 c. (guess) which x, x a book, John gave x to Mary.
 d. Guess which book John gave to Mary.
 e. *Guess John gave which book to Mary.
 (in Korean and Japanese which have weak Q, (15e) is a correct sentence).

- (16) Suppose that a language has weak Q. In that case the structure (63) [here (15a)] will reach PF without essential change. If DP = which book, it will remain in-situ at PF, (and also at LF, *apart from covert raising for Case*)... But languages commonly have wh-in situ with the interpretation of (65c) [here 15c]. They must, then, employ an alternative interpretive strategy for the construction Q [...wh...], interpreting it, perhaps, as something like **unselective binding**. (Chomsky, 1995: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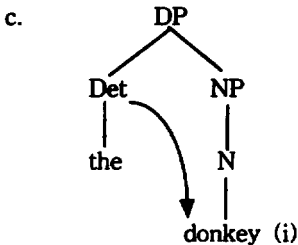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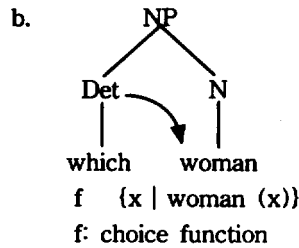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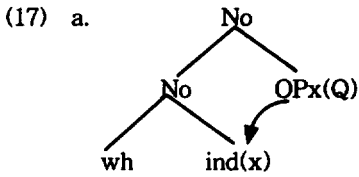
위 (15a)에서 Q는 weak Q로, DP를 which로 가정하면 (15b)와 같이 되고 그 문장의 의미는 (15c)로 표현된다. 여기서 weak Q라 함은 한국어, 일본어 같이 의문문에서 wh-phrase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 남아있는 경우를 말한다. 영어의 경우 (15d)에서 which book가 내포문 앞으로 이동한 경우는 정문으로 인정되나 제자리에 남아있는 경우인 (15e)는 비문이다. 그러나 한국어, 일본어의 경우는 정문이다.

Chomsky는 비선택적 결속에 대해서 그것을 제안한 제안자들과 함께

10 윤 만 근

위 (16)과 같이 가정하고 있다. 즉, 비선택적 결속은 제자리에 남아있는 wh-NP의 해석에만 적용되고 wh-NP의 격은 제자리에서 점검될 수 없다고 했다 (위 (16)의 *italic*체로 된 표현참조). 왜냐하면 wh-NP의 격은 v, V에서 부여되지만 격점검은 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점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선택적 결속은 제자리에 있는 wh-NP의 해석은 허용하나 격점검을 위해서는 (16)에서 언급된 것같이 LF에서 wh-phrase의 비가시적 인상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unselective binding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 학자들의 제안 중에서, Tsai (1994:23)와 Reinhart (1995:34)의 정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unselective binding은 원래 Higginbotham (1983, 1985)의 제안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Higginbotham은 명사는 "지표-논항의 관계 (index-argument relation)"를 갖고 생성되는데 이 지표-논항의 관계는 다음 (17c)에서처럼 지정사(determiner)에 의해서 결속되므로써 지표-논항의 관계가 방출되어 진다(discharged)고 제안했다. Tsai는 Higginbotham의 견해를 확대해서 wh-NP도 아래 (17a)에서 제시된 것 같이 운용소 Q는 그것의 변항 x를 결속한다고 가정했고, Reinhart(1995)도 (17b)처럼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17a,b)에서 모두 운용소 Q나 지정사(Determiner)가 변항이나 명사를 결속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부가어인 adjuncts는 명사적 요소가 없다고 보아서 제외시켰다.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결과 unselective binding은 wh-adjuncts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wh-NP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unselective binding이 wh-NP에만 적용된다면 앞 (1)-(7)에 제시된 wh-adjuncts는 모두 그들의 자질을 점검 받기 위해서 가시적인 이동을 해야만 하고, 반면 아래 (18)에서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남아있는 wh-NP인 what과 wh-adjunct인 when, why는 격점검과 자질점검을 위해서 각각 비가시적인 이동을 해야만 한다. 구체적인 점검과정은 (29b)-(30b)에서 제시된다.

(18) You can see [**who did what, when and why**].

다시 말하면 (18)의 what는 제자리에서 unselective binding에 의해서 해석은 되지만 격은 점검되지 않는다. 따라서 격점검을 위해서 what은 비가시적인 이동이 요구된다. 반면 when과 why는 이들의 [Q]-feature의 점검을 위해서 비가시적으로 이동해야 한다. 결국 (18)에 나타난 세 개의 wh-phrase, what, when, why는 모두 비가시적인 이동을 해야만 한다. (18)에서처럼 wh-NP와 wh-adjunct가 함께 나타날 경우에는 Superiority Condition 때문에 wh-adjunct가 가시적인 이동은 할 수 없다.

Chomsky는 Reinhart와 Tsai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wh-adjunct는 변항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는 unselective binding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들의 자질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비가시적인 이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wh-NP는 unselective binding에 의해서 제 자리에서 해석될 수 있으나 격점검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시적인 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의 논의를 통해서 보면 unselective binding이 Multiple Wh-Fronting Construction을 저지하거나 방해되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무엇이 Wh-NP의 격을 점검하는가?

필자는 wh-NP의 주격은 C^o에 의해서 점검되고 wh-NP의 목적격은 C^{max}에 의해서 점검된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필자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Chomsky와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예문은 Chomsky의 예문이다 (Chomsky, 1995: 302-303).

- (19) a. What did John see t?
b. What [t' was seen t]?

- c. (guess) what there is [t in the room].
 d. What did John expect t' [t' to be seen t]?

위의 예에서 흔적 t는 모두 논항연쇄(A-chain)를 이루고 있는데 wh-이동으로 인상되었다. (19b,c,d)에서는 t의 자질이 여전히 격점검을 위해 연산과정에 접근할 수 있고 (19c)에서는 wh-phrase가 체류어에 인상된다. 위의 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9b,d)이다. 왜냐하면 (19b,d)에서 중간흔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간흔적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연산체계가 언어직관적으로 흔적이 “목적어 위치에서 주어위치로 변화되었다”는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19b)에서는 이동으로 말미암아 격이 목적격에서 주격으로 변화했고, (19d)에서는 목적격에서 주격으로 변화했다가 다시 목적격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wh-이동에서 중간흔적 t의 자질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나 논항이동(A-movement)에서는 중간흔적의 자질이 삭제된 후 말소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19a)에서 Chomsky는 흔적 t에 의해서 시작되는 논항연쇄에서, 격자질 F(case feature F)의 이동이 격점검을 위해 비가시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허용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what은 가시적으로 CP의 Spec으로 이동한 후 what의 흔적 t가 갖고 있는 자질 중에서 격자질 F만 비가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한 점이다. 그래서 격자질 이동에 의해 형성된 연쇄 (F, t_F)의 양쪽은 아래 (20)에서처럼 삭제된 후 말소된다고 했다 (Chomsky, 1995: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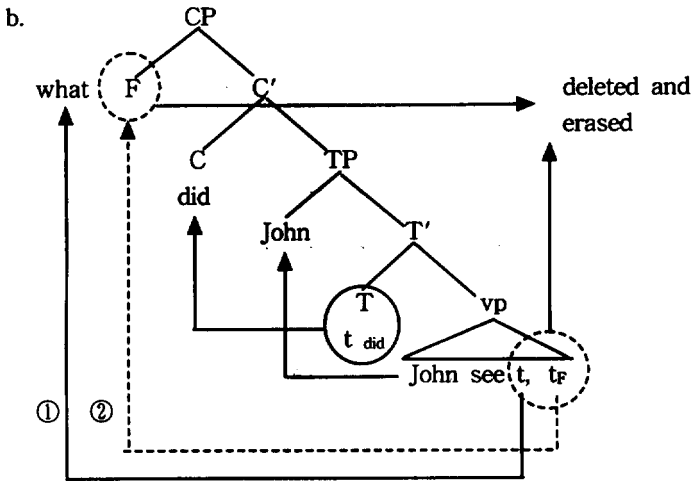
그러나 이 제안은 하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즉, Chomsky는 자신이 설정한 “흔적은 움직일 수 없다(trace is immobile)”는 규정에 모순을 보이고 있다. 특히 흔적인 t 전체가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 흔적의 자질 일부가 비가시적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본다. 흔적의 이동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흔적에서 그 자질 일부를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모순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9a)의 what은 그 격을 동사 see가 부여하기 때문에 점검도 동사 FF(see)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우선 아래 (20)에서 Chomsky의 가정을 살펴보자:

(20) As for (92a) [here (19a)], the revised formulation permits

the Case feature F in the argument chain headed by t to raise covertly for Case checking, which now deletes and erases it in both positions of the chain (F, t_F) formed by the operation (and in the operator). (92c) [here (19c)] falls out the same way. There are a variety of other cases to consider. I will leave the matter here, pending closer study. (Chomsky, 1995: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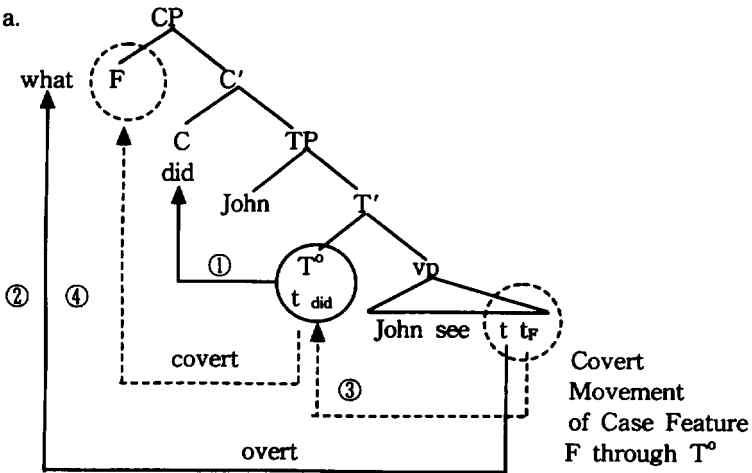
위 (20)이 제시한 내용을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 (21a,b)와 같다. 즉, ①의 이동으로 what이 CP의 Spec에 이동하면 흔적 t가 남는다. 그 다음 이 what의 흔적 t외에 ②의 이동으로 what의 격자질 F가 격점검을 위해 비가시적으로 CP의 Spec에 이동하면 이 연쇄의 양쪽에 나타난 F, t_F는 삭제된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what의 격자질 F가 what과 함께 동시에 이동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what은 분명히 가시적으로 이동하고 그것의 격자질은 비가시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21)에서처럼 가시적인 what의 이동 ①과, 비가시적인 격자질 F의 이동 ②는 별개의 이동으로 간주해야 한다.

(21) a. What did John see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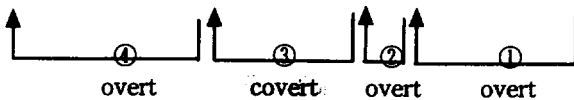


그런데 이 ②의 이동이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는가? what과 함께 동시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what이 남긴 흔적 t에서부터 격자질 F만이 분리되어 나와서 비가시적으로 인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흔적 t의 일부가 비가시적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흔적의 이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것의 자질 일부가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모순을 보이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Chomsky도 위 (20)에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면한 연구과제로 남겨놓는다고 했다 (I will leave the matter, pending closer study (Chomsky, 1995: 303)). 그러므로 필자도 나름대로 “ $C^{o(max)}$ 의 설정”이라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양동휘, 1996:103-104) 아래 (22a)에서처럼 흔적 t가 T(Spec, AGRs)나 $T^{o(max)}$ 즉 (Spec, AGRo)를 거쳐서 간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who, which와 같이 주어로 사용되는 wh-phrase는 T^o 에서 주격을 점검받고, what, whom같이 목적어로 사용되는 wh-phrase는 $T^{o(max)}$ 에서

(22) a.



b. What did John ($T^{o(max)}$) expect t' [t' to be seen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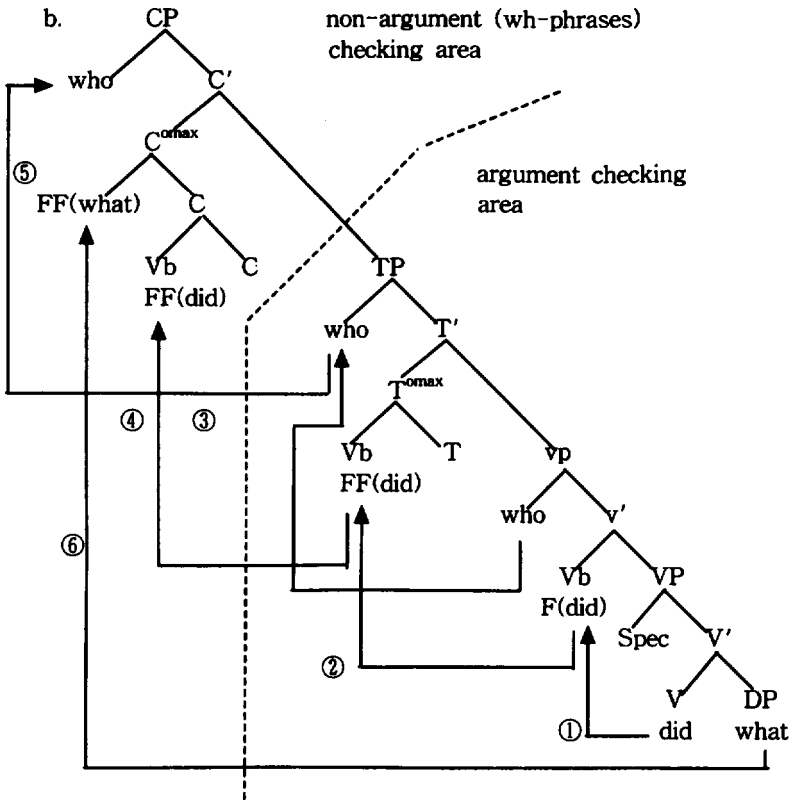


에서 격점점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은 앞 (19d)와 같은 문장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즉, "What did John t' [t' to be seen t]?"이라는 문장에서 흔적 t에서 t'로 이동하는 경우와 t'에서 t''로 이동하는 경우는 이 이동이 가시적이거나, t'에서 T^{o(max)}까지의 이동은 비가시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동인 T^{o(max)}에서부터 문장의 앞자리까지의 이동은 위 (22b)가 보여주는 것 같이 다시 가시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한 요소가 이동할 때, 가시적, 비가시적 이동이 함께 섞여지게 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위 (22a)에서 T의 자리에는 동사 did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런데 만일 격자질 F가 이 t_{did}의 흔적을 지나가면, 이것은 흔적이 다른 흔적의 자리를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와 같은 이동은 적법한 이동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초기 생성문법에서는 C가 wh-phrase의 격을 점점한다고 가정해 왔다. 그러나 앞 (19a), (21a,b)에서 왜 Chomsky는 흔적 t에서 나온 격자질 F가 wh-NP인 what의 격을 점점한다고 가정하고 있는가? (21a,b)에서 "did"는 Do-Support에 의해서 삽입된 것인데 Do-Support에 의한 삽입은 T에서 이루어져서 I-to-C raising에 의해 C의 위치에 인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did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what의 격을 부여/점점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21a,b)와 같은 분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만일 다음 (23a,b)에서처럼 C에 본동사가 나타나면 앞 (21a,b)와는 달리 C에 인상된 본동사가 wh-NP의 격을 점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23a,b)를 보자.

아래 (23a)를 (23b)와 같이 가정하는 이유는 오직 본동사 did가 FF(did)의 형태로 ②의 이동에 의해 T로 인상되면 주어인 who가 ③의 이동으로 TP의 지정어 자리에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동은 일반적인 주어가 논항주어일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23a,b)의 경우에는 주어 who가 TP의 지정어 자리에서 점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who는 비논항주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who는 CP의 지정어자리로 인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who를 CP의 지정어 자리로 유인하는가? 필자는 아래 (23b)에서처럼 ④의 이동으로 FF(did)가 C에 먼저 인상된 후 이 FF(did)가 가진 강한 [Q]-자질 때문에 주어 who가 유인된다고 본다. 이것은 마치 FF(did)가 T^o에 인상되어 TP의 지정어를 유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어가 비논항 주어인 wh-NP인 것이 TP의 주어와 다를 뿐이다.

(23) a. Who did w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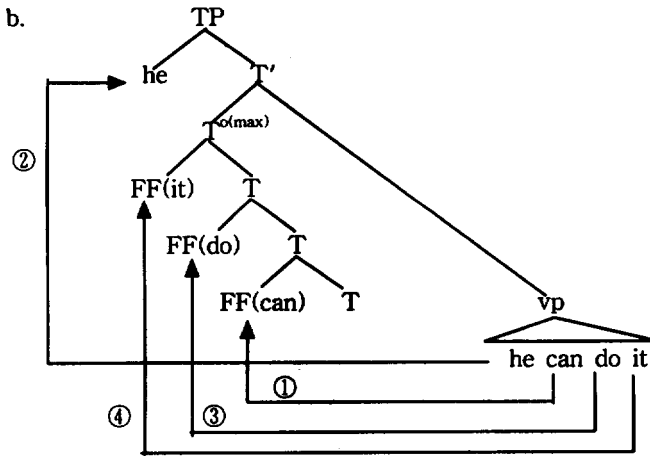
위 (23b)에서 FF(did)가 해야 할 일은 TP에서 그것의 주어 who를 유인하고 그 다음 그것의 목적어를 유인해야 하는데, 그것의 목적어를 TP에서는 유인할 수 없기 때문에 C^o로 인상한 후, C^{o(max)}에서 FF(did)는 그것의 주어 who를 다시 인상하고, 그 다음 목적어 what를 유인해서 점검하는 것이다. 그런데 (23b)에서 필자는 “비논항(wh-phrases) 점검영역(non-argument checking area)”과 “논항점검영역(argument checking area)”으로 구분했는데 이와 같은 구분은 Chomsky (1998: 37)에 연유한다. 즉, Chomsky (1998: 37)에서는 아래 (24)와 같이 wh-NP의 이동을 “논항연쇄 부분”과 “비논항연쇄 부분”으로 구분하고 TP의 Spec 자리는 논항/비논항의 성격을 함께하는 영역으로 보았다.

(24) a. Who did you say [t has [t' discovered the pro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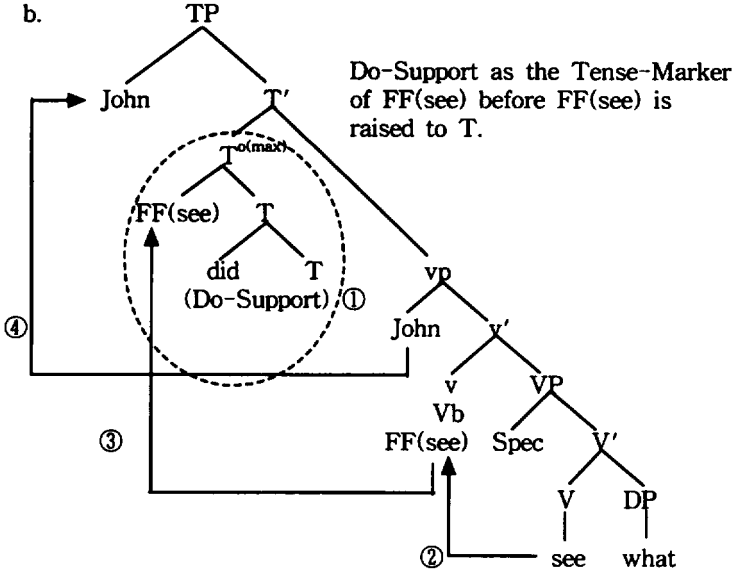
위에서 Chomsky(1998: 37)는 who가 갖는 연쇄가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된다고 했다: 하나는 (who, t)로 된 A'-chain이고, 다른 하나는 DP의 (t, t')로 된 A-chain이라 했다. 따라서 t에 나타난 who는 논항의 성격과 비논항인 who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다음 (25a,b)와 같이 can이 조동사이고 do가 본동사인 구조를 생각해 보자.

(25) a. He can do it.



(25b)에서 먼저 조동사 FF(can)이 인상되고 그 다음 본동사 FF(do)가 인상된다. 이 때 FF(can)은 그것의 주어 he를 TP의 지정어 자리로 유인하여 격점검과 일치자질을 점검하고 그 다음 FF(do)가 인상되어 그것의 목적어를 T^{o(max)}에 인상시켜 목적격과 일치자질 점검을 마친다. 그러나 앞 (21a,b)에서 처럼 Do-Support를 받는 경우에는 조동사 do가 T에 Do-Support로 먼저 삽입되고 본동사 see는 FF(see)의 형태로 T'에 인상되어 지정어 John을 TP의 Spec에 유인한 다음 Do-Support로 삽입된 did가 FF(see)의 시제접사로 첨가된다고 가정한다. 그렇게 되면 다음 (26a,b)와 같이 된다.

(26) a. What did John see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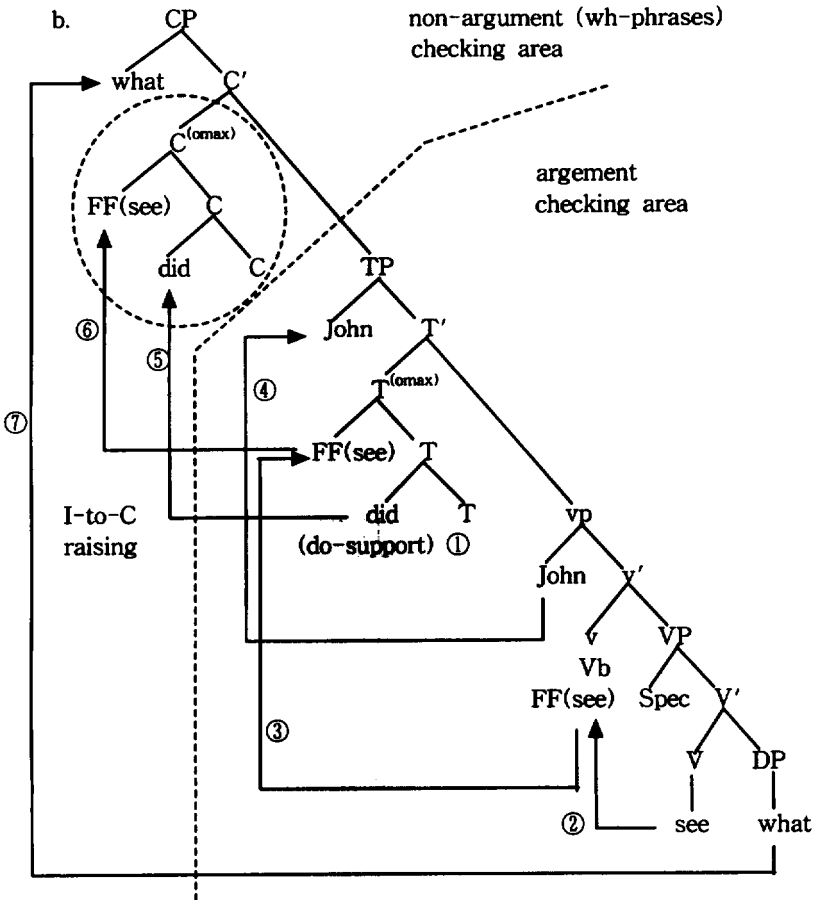


위 (26b)에서 ①과 같이 먼저 Do-Support가 적용되고 그 다음 FF(see)가 ②, ③의 이동으로 T^0 에 인상되면 TP의 지정어 John을 ④의 이동으로 유인한다. 이제 (26b)는 $T^{0(max)}$ 에 FF(see)의 목적어 what을 유인해 올 차례이다. 그러나 $T^{0(max)}$ 에 목적어 what을 유인해 올 수 없다. 그 이유는 what이 논항 명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I-to-C raising에 의해 시제표지 did가 다음 (27b)처럼 가시적인 이동으로 C에 인상된다. 그러나 시제표지 did가 C에 인상된 후 did는 그 임무를 완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did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것의 목적어를 CP의 지정어 자리로 유인할 수 없다. 목적어 what을 CP의 지정어 자리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본동사 FF(see)가 다시 한 번 비가시적으로 (27b)에서 ⑥의 이동으로 $C^{0(max)}$ 에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FF(see)와 did는 (27b)의 수형도에서처럼 원내에 동사의 어근과 접사로써 $C^{0(max)}$ 에 함께 나타나야 한다고 가정한다.

Do-Support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조에서 Do는 본동사의 시제표지로 삽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동사와 Do-Support로 나타난 시제가 점점시에는 함께 나타나야 점점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동사어근과 그것의 시제가

(26b)와 (27b)의 수행도의 원내에 나타난 것처럼 어근과 접사가 대응(match)을 보여야 한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필자의 주장이다. 아래 (27b)에서처럼 FF(see)와 그것의 시제표지 did가 함께 나타났을 때에만 그것의 목적어 what을 CP의 지정어 자리로 유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의 격과 자질을 점검한다고 본다. 앞에서 보여준 (21a,b)의 Chomsky의 분석과는 달리 필자는 (27b)와 같은 분석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7) a. What did John see t ?



6. 다중전치 의문사구조에서 $C^{o(max)}$ 설정의 장점

다중전치 의문사구조의 기술에서 $C^{o(max)}$ 를 설정하는 것은 이미 앞절에서 언급한 것 같이 그 타당성과 장점을 갖고 있다. Chomsky(1995: 303)가 제안한 예문 앞 (21)을 아래 (28a)로 다시 인용한다. (28a)의 what은 그 흔적 t_i 로부터 격자질 F만 인상시킴으로써 what이 갖는 대격을 점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커다란 단점을 갖고 있다. 다음 예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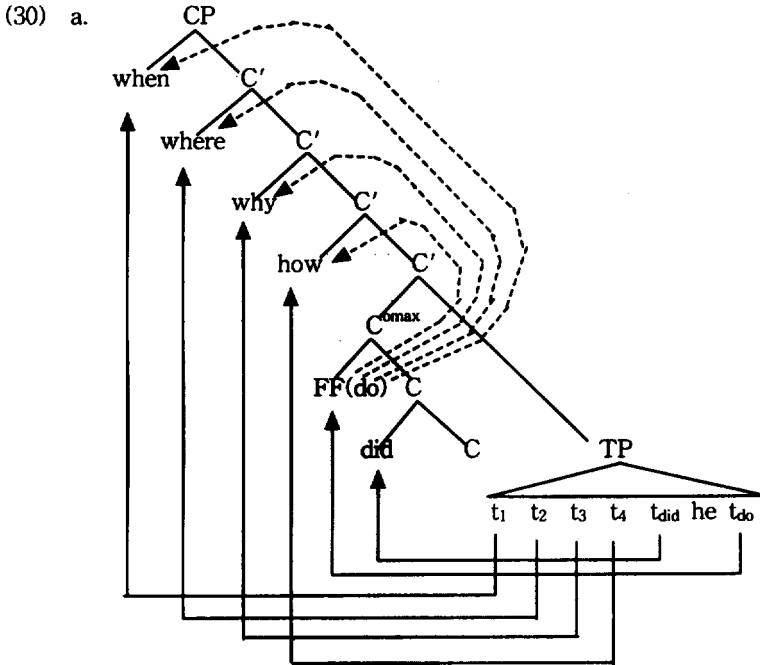
- (28) a. What_i did John see t_i ?
 b. What_i was given t_i to John ?

위 (28b)에서는 (28a)와 동일한 방법으로 what의 격을 점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given이 what의 격을 흡수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인상될 격자질 F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격이 없어서 문장의 앞으로 이동하여 동사 was로부터 주격을 부여받고, 점검을 받는다는 종래의 이론은 (28a)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28a,b)를 동일한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28b)에서는 what이 CP의 Spec으로 인상된 후 C^o 에 의해서 주격을 받고 점검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28a)도 필자가 제시한 앞 (26)-(27)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화를 포착하는 길이라고 본다. 목적어 what의 격을 점검하는데 제시된 또 하나의 이론은 what이 갖는 대격을 T에서 점검한다는 것인데 이 주장도 앞 (19d), (22b)가 보여주는 것 같이 $T^{o(max)}$ (Spec, AGRoP)에 가시적으로 what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what이 T로 이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what이 이동하는 길은 앞 (22b)가 보여주는 것같이 가시적인 이동과 비가시적인 이동이 함께 합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요소가 이동할 경우 가시적, 비가시적 이동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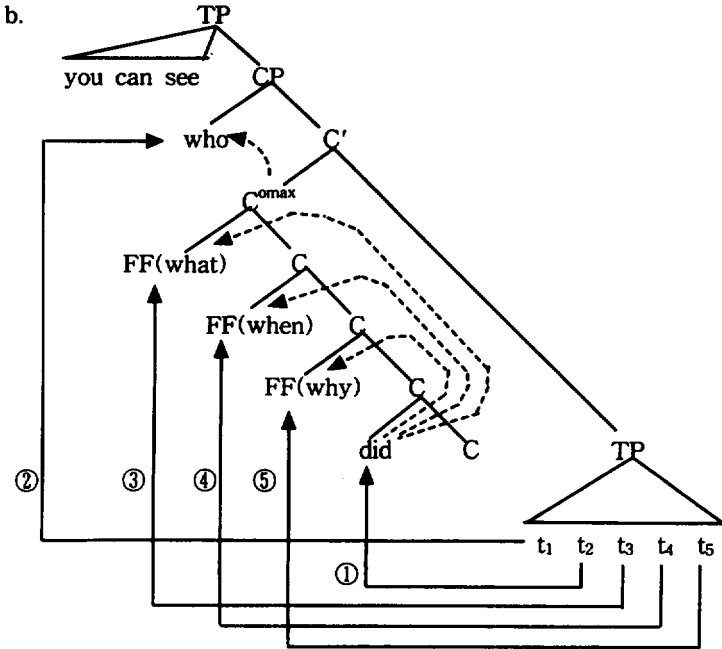
더욱 what의 대격을 $T^{o(max)}$ 에서 점검한다고 하면 "What did John ($T^{o(max)}$) expect t " [t ' to be seen t]?"과 같은 문장에서는 Do-Support에 의해서 do가 삽입되었다가 I-to-C Raising으로 이동한 do의 흔적의 자리에 나타나야 한다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C^{o(max)}$ 의 점검 개념을 수용한다면 다중전치 의문사구조뿐만 아니라 제자리에 남아있는 다중 의문사구조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일반화를 포착한다고 주장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9) a. When, where, why and how did he do it?
 b. You can see who did what, when and why?

위 (29a)에서 네 개의 부가어는 그 문장 내의 원위치에서 가시적으로 모두 문장의 앞으로 이동한 것이며, 이 부가어의 자질은 다음 (30a)에서처럼 C에 비가시적으로 인상된 FF(do)에 의해서 점검을 받는다. 그리고 (29b)에서는 wh-NP와 wh-adjuncts가 함께 나타났는데, 이를 분석한 (30b)에서 who는 그 문장의 맨 앞 위치로 가시적인 이동을 했고, 나머지 세 개의 wh-phrase, 즉, what, when, why는 제자리에 남아있다. 그러나 앞 3절에서 논의된 것 같이 wh-NP인 what은 제자리에서 unselective binding에 의해서 해석은 되지만 그것의 격점검을 위해서는 비가시적으로 인상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wh-adjuncts인 when과 why도 이들의 자질을 점검받기 위해서는 역시 아래 (30b)와 같은 비가시적인 인상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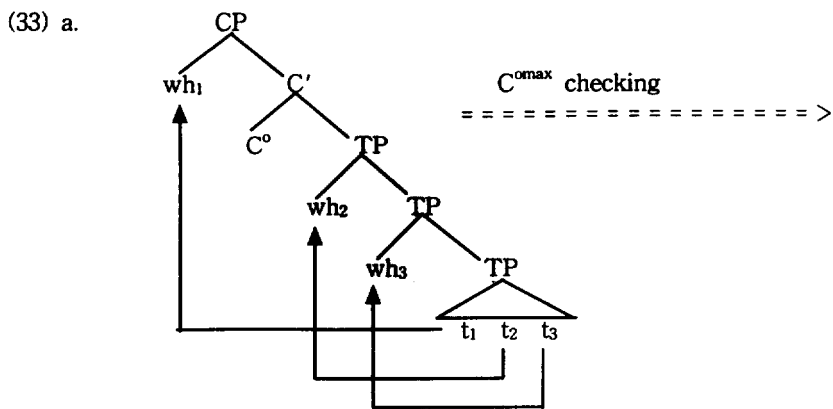


(30a)와 (30b)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30a)에서는 did가 FF(do)의 시제접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본동사인 FF(do)가 비가시적으로 C°에까지 인상되어야 비로소 when, where, why, how의 Q-feature를 모두 점검한다고 본다. 그러나 (30b)에서는 내포문에서 did가 본동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did 그 자체만으로 모든 wh-phrase의 자질점검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다중전치 의문사구조를 기술하는데 C^{o(max)}의 분석방법을 이용할 경우 동유럽의 Slavic계 언어에 나타나는 다중전치 의문사구조를 분석하는 데에도 많은 장점이 있다. 다음 (31a,b)에 제시된 Bulgarian과 Romanian의 다중전치 의문사구조는 앞 (30a)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두 언어에서는 모든 wh-phrase가 문장의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래 (32a,b)도 동일한 다중전치 의문사구조를 나타내지만, 이들의 기저구조는 Lasnik and Saito(1984)와 Rudin(1988)에 의해 다음 (33a)와 같이 분석된다. Czech, Polish계의 다중전치 의문사구조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wh-phrase만 CP의 Spec에 인상되고 나머지는 TP에 부가된다고 했다.

- (31) a. Koj kogo vizda? (Bulgarian)
 who whom sees
 Who sees whom?
- b. Cine ce a spus? (Romanian)
 who what has said
 Who said what?
- (32) a. Kdo kdy koho pozval, nevim (Czech)
 whom when whom invited I don't know
 Who invited whom when, I don't know
- b. Kto co robił? (Polish)
 who what did
 Who did w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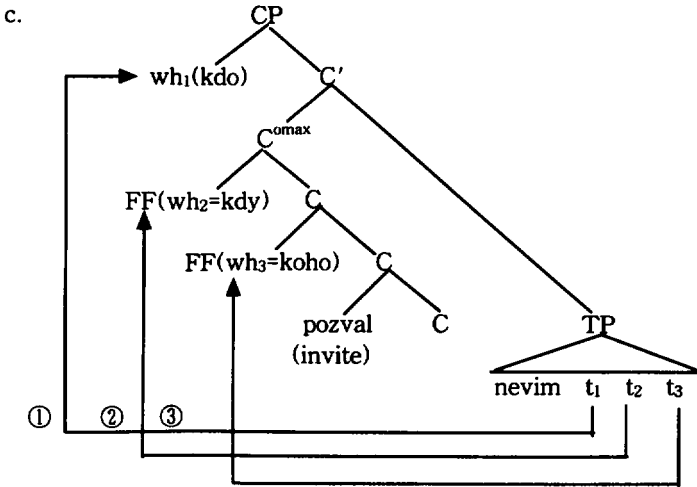


그러나 Lasnik and Saito(1984)와 Rudin(1988)은 (33a)의 TP에 부가된 wh-phrase의 자질을 어떻게 점검해야한다고 제시한 바 없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필자는 이 TP에 부가된 wh-phrase는 (33b,c)에 제시된 Czech의 예와 같이 $C^{(max)}$ 에 의해서 점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다중전치 의문사구조를 보이는 언어는 Serbo-Croatian, Polish, Czech 등이다. Rudin(1988)에 의하면 (34a,b)에 나타난 Russian도 이 유형의 언어에 속한다고 분석했으나, 최근 Stepanov(1998)에 의하면 Russian은 제자리에 남아있는 다중전치 의문사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Russian에 관한 한 이 두

24 윤 만 근

학자들의 분석 중 어느 것이 정확한 분석인지 좀 두고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한국어, 일본어에서 제자리에 나타나는 다중의문사구조도 필자가 제시하는 비가시적인 이동으로 $C^{(max)}$ 의 분석을 따를 경우 더욱 타당한 분석이 된다고 주장한다.

- b. Kdo kdy koho pozval, nevim (Czech)
 whom when whom invited I don't know
 Who invited whom when, I don't know



- (34) a. Кто кому сказал ? (Russian)
 who whom said
 Who talked about whom?
- b. Что кто где видел ?
 what who where did see?
 Who saw what, where?

7. 결 론

앞 서론과 1절에서 주장한 것 같이, 필자는 첫째, 네 개의 부가어 (when, where, why, how)는 영어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다중전치 의문사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중전치 의문사구조를 기술할 수 있는 이론적인 장치 (theoretical device)는 이미 Chomsky(1994), Chomsky(1998), Richards(1997)에 의해서 제시된 바 있다. 다만 앞에서 논의된 것같이 Outer Specs의 이론을 이용할 경우는 Wh-Island Constraint를 위반하고, Inner Specs의 이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Extension Condition을 위반하게 된다. 그런데 앞에서 논의된 영어의 wh-adjuncts의 이동이나 Romanian, Bulgarian의 예를 보면 Wh-Island Constraint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Wh-Island Constraint는 더 이상 언어 보편적인 제약조건이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Chomsky(1994, 1995, 1998)의 Outer Spec이 더 설명력이 있게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나 일본어의 중주어구조를 점검하는 데에는 Richards(1997)의 PMC(Principle of Minimal Compliance)의 이론이 적절하기 때문에 Inner Specs의 이론도 언어 유형과 multiple Spec의 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둘째, 비선택적 결속(unselective binding)은 제자리에 남아있는 모든 wh-phrase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wh-NP에만 적용되고, wh-adjunct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제자리에 남아있는 wh-NP에 비선택적 결속이 적용된다고 **같은 제자리에서 wh-NP의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wh-NP의 적은 **점점하지 못한다**. 따라서 wh-NP의 격점검을 위해서는 비가시적인 이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선택적 결속의 개념을 다중전치 의문사구조에 적용시켜도 다중전치 의문사구조를 생성해내는 데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wh-adjuncts는 모두 비가시적인 인상으로 그들의 자질을 점검하고, wh-NP의 주격은 C^o에 의해서 점검되고, wh-NP의 목적격은 C^{o(max)}에 의해서 점검된다고 주장하며, 이 C^{o(max)}의 설정은 여러 유형의 다중전치 의문사구조 및 제자리에 남아있는 다중의문사구조의 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일반화를 포착한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 양동휘. 1996. 최소이론의 전망. 서울: 한국문화사.
- Boskovic, Zeljko. 1998. Wh-Phrases and Wh-Movement in Slavic. ms. U Conn.
- Boskovic, Zeljko. 1998. "LF Movement and the Minimalist Program," NELS 28.
- Chomsky, N. 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o. 5. MIT.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MIT Press.
- Chomsky, N. 1998. Minimalist Inquires: the Framework. Ms. MIT.
- Comorovski, Ileana. 1986. "Multiple Wh-Movement in Romanian," Linguistics Inquiry 17.
- Higginbotham, J. 1983. "Logical Form, Binding, and Nominals." LI. 14. 395-420.
- Kiss, Katalin. 1993. "WH-Movement and Specificity," NLLT., Vol., 11.
- Koizumi, Masatoshi. 1994. "Layered Specifiers," in NELS 24.
- Kuno and Takami. 1992. "Multiple Wh-Questions: With Sepcial Reference to Why and Naze 'Why'," in Functional Syntax and GB Theory.
- Lasnik and Saito. 1984. "On the Nature of Proper Government," LI. 15. 235-289.
- Reinhart, T. 1995. Interface Strageties, OTS Working Papers.
- Richards, Norvin W. 1997. What Moves Where and When in Which Languages?, Doctoral dissertaion, MIT.
- Rudin, C. 1988. "On Multiple Questions and Multiple WH-Fronting," NLLT., 6-4. 445-502.
- Stepanov, Arthur. 1998. "On Wh-Fronting in Russian." NELS 28.
- Tsai, W. T. D. 1994 On Economizing the Theory of A'-Dependencies. Doctoral Dissertation, MIT.
- Wachowicz, Kristina A. 1974. "Against the Universality of a Single Wh-Questions Movement," Foundation of Language 11.
- Yoon, Man-Kun. 1997. "Multiple Outer-Specs of CP in the Minimalist Program", Sutdies in Generative Grammar, Vol. 7, No 2.: Seoul.